

중국정부 중동 문제 특사

중동 정세 관련 중국 입장 밝혀



3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시청 앞에서 사람들이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 신화넷

중국공공외교협회회는 23일 오후 북경에서 '림갑(临甲) 7호 살풍' 정례 브리핑을 열고 중국정부 중동 문제 특사 직준을 초청해 중동 정세 관련 중의 기자들과 만났다. 직준은 현재 중동지역 정세가 고도로 긴장되고 전쟁이 장기화·격화·확산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세에 대한 리해하는 때우 명확한바 그 핵심은 전쟁 중단과 대화·협상 개시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며칠 동안 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추장국련방, 바레인, 쿠웨이트, 예멘 등 지역 국가들을 순방하여 해당 국가 외교부장 및 결프 협력회의, 아랍련맹 사무총장 등과 지역 정세에 대해 깊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전쟁으로 지역 국가들, 특히 결프의 아랍 국가들이 겪고 있는 영향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리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관과도 심도 있는 교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각하게 위협하고 글로벌 경제, 에너지, 항로 안전에 충격을 주며 세계 각국의 복지를 위협하고 있다. 아랍 특히 해안협력회의의 국가들은 무고한 피해를 입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군사 충돌중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레드라인'(红线)을 넘어서는 안되며 에너지, 경제, 민생 등 비군사적 목표물을 공격 대상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호르무즈해협 등 국제항로의 안전이 파괴되어서는 안된다. 중국은 민간인과 비군사적 목표물에 대한 모든 무차별 공격 행위를 규탄한다.

넷째, 전쟁 중단과 휴전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이번 전쟁의 규모, 격렬함, 지속 시간은 모두 작년의 '12월 전쟁'을 넘어섰다. 중동은 이미 충분히 혼란스럽다. 지역 국가 국민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평화와 안정이다. 관계 당사국들은 즉시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긴장된 정세가 더욱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며 상황이 수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직준은 이번 중동 순방을 통해 지역 국가들에 중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첫째, 이번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다. 중동 각국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기대하고 이란과 미국의 새로운 라운드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갑작스럽게 전쟁을 일으켜 외교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는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유감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둘째, 이번 위기의 시비는 매우 명확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회의 승인 없이 이란을 공격했는데 이는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중국은 이를 단호히 반대하고 규탄한다. 현재의 위기를 해결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 충돌의 근원과 전제상을 파악해야 한다.

셋째, 전쟁이 확산·확대되는 것을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 현재 전쟁은 중동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심

다섯째, 대화와 협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역사와 현실은 분쟁과 이견에 있어서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군사적 수단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무력은 결코 최우선 선택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평화라는 초심을 지니고 적극적으로 평화를 촉진하고 전쟁을 중단시키며 외교적 경로를 통한 분쟁 해결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여섯째, 일방주의를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 주먹이 세다고 리지가 옳은 것은 아니다. 대국은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합부로 타국을 공격할 수 없다. 국제사회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공동으로 저지하고 세계가 악용강식의 정글(丛林) 법칙으로 퇴보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유엔은 중재의 주된 역할을 수행해 각국이 신뢰를 구축하고 이견을 좁히고 협상을 재개하도록 도와야 한다.

/ 신화넷

▶ 1면에서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었다. 습근평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교실에 들어가 사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교수 상황을 료해했다. 그는 북경제 4중학교의 훌륭한 운영 경험과 방법으로 정성을 다해 아이들의 심신건강을 보살피고 아이들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길 희망했다.

학교 식당에서 습근평은 식사 환경과 음식 종류 등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식사 안전과 영양을 반드시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학교를 떠날 때 사생들은 일제히 총서기에게 안부를 전했고 습근평은 아이들에게 지금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분발하여 적극적으로 향상하며 웅안신구와 함께 성장하고 중국식 현대화와 더불어 발전하라고 격려했다.

23일 오후, 습근평은 웅안신구 고품질 건설 및 발전 심층 추진 좌담회를 주재했다.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주임 정철허, 하북성당위 서기 예약봉, 웅안

신구당사업위원회 서기 장국화가 선후하여 발언했다. 북경시, 천진시, 중양과 국가 기관 관련 부문 책임자들은 서면으로 발언 자료를 제출했다.

발언을 청취한 후 습근평은 중요한 연설을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하에 각 계각층의 공동 노력을 거쳐 웅안신구의 건설과 발전은 중대한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다.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 싶어 웅안신구 건설에 관한 당중앙의 결책은 완전히 정확하며 여러 면의 사업은 착실하고 효과적이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웅안신구의 고품질 건설과 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하려면 반드시 신구 기능 정위를 견지하고 북경 비수도권 기능의 분산 및 수용을 더욱 유력하고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한다. 중앙기업, 대학, 병원의 기능 분산 대상건설을 적극적으로 안정적이며 단계별로 추진하고 금융기구, 과학연구원(소), 사업단위의 기능 분산을 질서 있게 추진하여 분

산단위가 더욱 잘 발전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분산 대상과 인원에 대한 정책 보장 및 봉사를 강화하고 분산 대상이 신구 및 주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도록 인도하고 지지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웅안신구의 종합 수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려면 반드시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고품질 건설과 고능률 치리를 함께 틀어쥐어야 한다. 과학적으로 시기와 순서를 파악하고 힘을 모아 가동구, 시작구 등의 건설을 추진하며 힘써 '웅안의 질'을 창조해야 한다. 당 건설로 신구 치리를 인술하는 것을 견지하고 공공봉사 체계를 보완하며 민생을 힘써 보장하고 개선하며 미래를 지향한 지혜도시 관리 모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하늘이 맑고 땅이 푸르며 물이 깨끗한 아름다운 웅안을 건설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웅안신구는 개혁혁신을 동력으로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의 깊은 융합을

박오아시아포럼 2026년 년회 전망

전역 봉관후 첫 개최, 관전 포인트는

박오아시아포럼 2026년 년회가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해남성 박오에서 열린다. 올해 년회 주제는 '공동미래 만들기: 새로운 국면, 새로운 기회, 새로운 협력'이다.

올해는 '15.5'계획이 시작되는 해이자 박오아시아포럼 창립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해남자유무역항 전역 봉관 운영 이후 처음 열리는 년회인 만큼 2026년 박오아시아포럼 년회는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신호를 던질지 주목된다.

관전 포인트 1: 더욱 개방된 중국, 어떤 기회를 가져올가

중국의 대외개방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인 박오아시아포럼 2026년 년회는 '중국 경제 전망: 고품질 발전에 주목', '중국에 투자해 미래를 함께하자' 등 여러 행사를 특별 마련했다. 이런 자리에서는 '15.5'계획의 정책 방향, 신질생산력, 소비 회복, 제도형 개방 등 의제를 다루고 해남자유무역항의 제도 혁신, 다국 서비스, 요소 자유 이동의 강점을 집중 소개한다. 또한 다국 무역, 금융 개방, 디지털 서비스, 녹색산업 등 분야의 투자 기회를 공개해 글로벌 자본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협력 창구를 제공한다.

박오아시아포럼 부리사장 목홍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각종 위험 및 도전 속에서도 중국 경제는 강력한 탄력성과 활력을 보여주며 성장률이 주요 경제구 가운데 앞자리를 지키고 있고 세계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도 약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학기술혁신이 신질생산력을 촉발하면서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오아시아포럼 비서장 장군은 '15.5'계획의 시행과 함께 중국이 고수준의 대외개방 확대와 관련해 일련의 새로운 조치가 마련했다면서 그중 하나가 해남자유무역항을 고표준으로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년회는 각계 친구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발전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전 포인트 2: 어떻게 지역 협력 강화로 글로벌 관리를 이끌어낼가

현재 지정학적 갈등이 빈발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기세를 올리면서 세계경제가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다.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국제정세 속에서 어떻게 지역의 변명과 안정을 유지하고 글로벌 경제 관리를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번 년회는 관련 의제를 집중적으로 마련했다.

'지역 기구 협력 강화, 정책 협력의 시너지(合力) 창출'부터 '지역 연계 강화, 금융 안전과 안정 유지', 'RCEP: 어떻게 더 큰 잠재력을 발휘할 것인가



3월 17일, 박오 대과대학교 우에 설치된 박오아시아포럼 2026년 년회 주제 홍보판.

가, 'APEC 활성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비전으로'까지 여러 분과 세션에서는 지역 기구들이 어떻게 개방적 지역 협력과 통합 과정을 추진하고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효율적인 글로벌 경제 관리 체계 구축을 도모할 것인지 논의한다.

북경대학교 경제학 교수 번강은 관세전과 무역전이 거세지고 있지만 대다수 국가들은 여전히 규칙을 준수하며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 무역체계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오아시아포럼 리사이자 슬로베니아 전임 대통령인 다닐로 튀르크는 불확실성이 '새로운 정상적인 현상'이 되고 지정학적 충격이 경제 회복력을 위협하는 큰 흐름 속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적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경제 전환: 아시아의 선도적 역할' 등 분과 세션에서는 글로벌 경제 관리에서의 아시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주중 한국대사 노재현은 아시아의 지속적 성장 핵심은 개방적 발전과 연계성 심화에 있으며 향후 정책 조정을 계속 강화하고 지역 협력을 심화해 세계경제에 더 많은 확실성을 주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전 포인트 3: 어떻게 지능형 경제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낼가

온라인에서는 AI 드라마가 급성장과 무대에서는 로봇이 춤을 추고 있다. 현재 AI를 중심으로 한 신형 기술이 빠르게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지능형 경제의 새로운 형태 창출'이 처음

으로 명시되며 각계의 관심을 모았다. 지능형 경제의 실제 발전을 어떻게 더욱 추진할 것인지, 'AI+'가 어떻게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것인지에 대해 이번 년회의 여러 분과 세션에서 논의가 펼쳐진다.

'AI+: 디지털 지능이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다', 'AI 시대에 들어서며: 기회를 포착하고 미래를 창조하다' 등 의제에서는 어떻게 효율적인 산학연 협력 혁신 기제를 구축할 것인지, 대규모 모델 시대에 어떻게 'AI 활용'에서 'AI 능력 보유'로의 기술적 도약을 실현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여러 기업들이 포럼에서 최신 제품을 바탕으로 실제 협력을 공유한다.

한편 AI의 빠른 발전과 함께 관련 윤리 논란, 기술적 위험 등 문제로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인간형 로봇의 도약과 비약', '고위급 대화-미래 투자: 준비됐나' 등 의제에서는 AI 등 기술의 안전 규제, 미래 인간과 기계 관계 경제 등 최전선 주제에 대한 심층 논의가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아시아가 뛰어난 디지털 경제 산업사슬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공장'에서 글로벌 혁신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군은 "박오아시아포럼은 국제 과학기술혁신 대화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건강한 생태계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전 포인트 4: 녹색 리념, 어떻게 고품질 발전에 힘을 실어줄가

박오 탄소제로(零碳) 시범구역에

/ 신화넷

웅안신구의 광범한 간부들은 용감히 책임지고 자세를 낮추어 시달을 틀어쥐며 당과 인민에게 합격된 답안지를 제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리강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고 '천년대계'의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분초를 다투는 열정으로 웅안신구의 고품질 건설과 발전을 깊이있게 추진해야 한다. 북경의 비수도권 기능을 분산시키는 면에서 새로운 진척을 거두고 분산 동력과 수용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 도시의 내실을 풍부히 하고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면에서 새로운 돌파를 이루며 공공봉사를 다그쳐 보완하고 일류의 산업생태를 형성하며 세시대 혁신 고지를 구축해야 한다. 경진기 협동 발전을 촉진하는 면에서 새로운 성과를 내고 여러측의 우세를 집중하여 개혁, 모색을 강화하며 지역의 견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정실상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표

달어서된 일부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과 태양광 '바닥재'가 청정에너지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다. 뉴스센터(新闻中心) 옆에는 거대한 바나나 흐름(全钒液流) 전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광축직유'(光储直柔) 시스템에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년회의 주요 특징중 하나는 녹색·지능형 회의 운영 리념을 고수한다는 점이다. 신에너지 교통, 녹색 회의, 저탄소 숙박을 전면 적용하고 핵심구역의 저탄소 운영을 실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 리념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글로벌 기후와 환경 위기가 심화되는 큰 흐름 속에서 어떻게 유엔 2030년 지속가능발전 의제 관련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을까? 이번 년회에서는 '녹색 전환 가속화: 경로와 행동', '아시아 신에너지 협력', '글로벌 기후 관리의 도전과 전망', '녹색경제: 열대과일산업 발전의 새로운 동력과 새로운 추세' 등 분과 세션이 잇달아 열린다. 이를 통해 녹색 의제를 에너지, 금융 분야에서 실질경제와 민생 분야로까지 확장해 기후 관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촉진한다.

장군은 "오늘날 세계는 대변혁, 대전환의 심각한 조정기에 처해있다. 이는 아시아가 유엔 2030년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리행하는 데 다각적이고 심층적이며 상호 작용적인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개방적 지역주의를 고수하고 세계 대변혁이라는 배경 속에서 새로운 지속가능한 발전 경로를 함께 모색하는 것은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공통 과제"라고 말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철해야 한다. 기회를 틀어쥐고 기세를 몰아 웅안신구가 혁신구동 발전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추동하며 지역 협동 혁신 네트워크에 깊이 융합되어 북경(경진기)국제과학기술혁신중심의 중요한 거점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대학, 과학연구원(소)이 모여있는 우세를 발휘하여 산업, 학교, 과학연구기구의 융통 혁신을 촉진하고 고수준으로 교육, 과학기술, 인재 일체화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일류의 혁신생태를 공멸여 육성하고 신형산업과 미래산업을 다그쳐 발전시키며 웅안신구의 고품질 건설과 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오르도록 추진해야 한다.

하립봉 등이 고찰에 수행하고 좌담회에 참석했다. 윤력, 진민이, 오정룡 및 중앙과 국가 기관 관련 부문, 군대 관련 단위,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웅안신구, 관련 기업 책임자 등자들이 좌담회에 참석했다.